

2005~2009년 가구별 빈곤 지위의 변화¹⁾

Poverty dynamics of Korean Households 2005-2009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한국복지패널 1~5차 자료를 연결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가구의 빈곤경험 회수를 분석하고 있다. 어떤 가구가 주로 빈곤을 경험하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 빈곤의 지위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빈곤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각 가구가 갖는 빈곤의 경험과 지속 측면에서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빈곤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빈곤의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 가운데에서도 주로 빈곤 경험의 횟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빈곤경험 횟수의 차이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생산하여 온 <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자료가 5차 자료까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복지패널 자료는 국민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자료의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본격적으로 종단적(longitudinal) 분석이 가능해졌다. 물론 복지패널 자료가 동일한 가구나 개인의 생활실태를 매년 조사하는 패널 조사인 만큼 종단분석은 2차년도 자료부터 가

능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시계열에 한정된 분석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제까지는 종단적 분석이 잘 시도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5차년도 자료의 공개와 더불어 종단적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글은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종단적 분석의 한 예로써, 우리나라 가구의 빈곤지위가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의 동태적 지위란 달리 말해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회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어떤 가구가 주로 빈곤을 경험하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 빈곤의 지위 변화와

1) 이 글은 2011년 발간예정인 「2010년 한국복지패널-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일부를 담고 있음.

관련된 정보는 빈곤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각 가구가 갖는 빈곤의 경험과 지속 측면에서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빈곤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빈곤의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 가운데에서도 주로 빈곤 경험의 횟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빈곤경험 횟수의 차이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의 구성과 분석 방법

빈곤의 지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복지패널 1~5차 자료를 연결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각 연도별 데이터를 연결할 때에는 가구 결합키 변수를 이용하였고, 패널 데이터에는 1~5차 조사에서 모든 해에 걸쳐 소득과 가구 특성이 관측된 자료만을 포함시켰다. 즉 각 연도마다 발생한 분가가구, 신규 생성가구, 중도탈락가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가구는 5,637가구이다.²⁾

빈곤지위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단위는 가구로 한정하였다. 가구의 빈곤지위는 각 연도별 데이터에서 일차적으로 판별한 후, 이를 각 연도별로 연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빈곤지위는 2가지 소득범주에 대해 2가지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즉, 소득범주는 각 연도 원자

료 상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였고,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값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과 연도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선(절대빈곤선으로 지칭)을 이용하였다. 한편, 복지패널의 원자료에서 중위소득 가구의 60%선을 이용하여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준에 따른 가구의 소득지위 변화를 분석에 추가하였다. 가구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을 비교할 경우 가구원수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을 균등화하였는데, 가구소득 균등화의 방법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기초보장 수급지위의 변화 역시 빈곤의 지위 변화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기초보장 수급 가구의 지위 변화도 동시에 분석하였다. 복지패널 자료에서 수급가구는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수급가구,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특례가구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글의 분석에서는 이들 모두를 수급가구로 분류하였다.³⁾ 각 연도별 자료를 연결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중치는 5차년도 데이터의 표본가중치를 이용하였다.

빈곤의 경험과 가구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가구의 특성은 어느 가구원의 어느 시점의 특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글에서 가구의 특성은 5차년도에 파악된 가구주의 특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2) 참고로 각 차수별 가구의 관측치 1차(2006년 조사, 2005년 소득 기준) 7,072가구, 2차 6,580가구, 3차 6,314가구, 4차 6,207가구, 5차 6,304가구임.

3) 5차 조사의 경우 이전과 달리 일반/조건부/특례의 구분과 가구원 전부/일부 수급을 별도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가구원 일부 수급가구도 수급가구로 분류함.

복지패널의 각 차수별 데이터는 조사가 이루어진 이전 연도의 소득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1차 자료는 2006년에 조사되었으며 2005년의 소득과 2005년 말의 가구 상태를 보고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소득에 관해 시점을 언급할 경우에는 발생한 연도를(자료가 조사된 연도가 아닌) 표기할 것이다.

3. 빈곤경험회수의 분포

각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생성하기 이전에 각 연도별, 기준별로 빈곤 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저소득가구의 비율은 1차년도(2005년) 27.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차년도에는 24.7%로 떨어졌다.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가구의 비율 역시 1차년도의 20.8%에서 5차년도의 18.4%로 감소하였다. 반면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비율은 1차년도의 5.9%에서 다소 상승하여 5차년도에는 7.0%를

보이고 있다.

1차부터 5차까지 소득이 관측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결된 데이터에서 각 연도별 빈곤율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앞의 <표 1>과 비교할 때, 거의 모든 빈곤관련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표 1>에서 2009년의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8.4%로 나타났으나, 1~5차 자료까지 모두 소득이 관측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율을 추정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2009년의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9.0%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5차 조사까지 이르는 동안 표본에서 탈락된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빈곤율의 저하 경향이 관측되는 점에서는 <표 1>과 <표 2>가 동일하다. 특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의 경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기초보장 수급가구 비율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다.

다음의 <표 3>은 각 기준별로 5년간의 빈곤

표 1. 각 연도별 가구 빈곤율 변화

(단위: %)

구분	1차(2005년)	2차(2006년)	3차(2007년)	4차(2008년)	5차(2009년)
저소득	27.4	27.3	26.7	26.3	24.7
상대빈곤_경상소득	20.8	20.9	20.6	20.1	18.4
상대빈곤_가처분소득	20.3	20.2	19.9	19.6	17.6
절대빈곤_경상소득	13.0	10.7	10.1	8.2	7.0
절대빈곤_가처분소득	14.2	11.9	11.2	9.2	7.8
기초보장수급	5.9	6.9	7.3	7.4	7.0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표 2. 각 연도별 가구 빈곤율 변화

(단위: %)

구분	1차(2005년)	2차(2006년)	3차(2007년)	4차(2008년)	5차(2009년)
저소득	27.9	26.7	25.4	25.8	25.7
상대빈곤_경상소득	21.0	19.9	19.1	19.1	19.0
상대빈곤_가처분소득	20.5	19.3	18.5	18.7	18.3
절대빈곤_경상소득	13.2	10.3	9.1	8.1	7.4
절대빈곤_가처분소득	14.4	11.6	10.1	9.1	8.2
기초보장수급	6.8	7.2	7.5	7.4	7.3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경험회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5년간 가구 소득이 한 번도 저소득으로 분류된 적 없는, 즉 중위 소득의 6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56.5%이다. 반대로 나머지 약 43.5%는 한 번 이상 저소득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의 경우, 5년간 한번도 빈곤을 경험한 적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64.9%이며, 나머지 35.1%의 가구는 빈곤을 경험하였다. 전체 가구의 11.3%(빈곤경험가구의 32.1%)는 1년만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6.0%(빈곤경험가구의 17.1%)가 2년간, 그리고 4.8%(빈곤경험가구의 13.6%)가 3년간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가구의 약 8.2%(빈곤경험가구의 약 23.4%)가 5년동안 계속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빈곤 경험 가구 가운데 1회만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가구와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장기빈곤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보장 수급의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표 3. 5년간 빈곤경험회수의 분포

(단위: %)

빈곤기준 경험회수	저소득	상대빈곤_ 경상	상대빈곤_ 가처분	절대빈곤_ 경상	절대빈곤_ 가처분	기초수급
0	56.5	64.9	64.4	76.1	73.3	90.8
1	12.6	11.3	12.2	11.6	13.1	1.1
2	6.6	6.0	6.5	5.6	6.2	0.9
3	5.3	4.8	4.7	3.2	3.4	1.0
4	5.6	4.8	5.0	2.1	2.2	1.3
5	13.6	8.2	7.2	1.5	1.8	5.1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9.2%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수급가구 중 5년간 수급지위를 유지한 장기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5.1%이지만, 수급경험 가구 가운데에서는 절반 이상인 5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5년간 유지된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15%(빈곤 경험가구의 6.3%)인 것과 비교하면 수급의 장기화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빈곤경험회수별 소득수준 비교

빈곤을 경험한 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수준이 낮았던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소득의 격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곤을 경험한 회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각 집단별로 소득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 것이 <표 4>이다.

이 표는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의 경험 회수별로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한다. 이 때 평균소득은 각 연도의 소득을 2009년의 물가를 기준으로 실질소득으로 전환한 후 5년간 소득에 대해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비교 결과 빈곤을 경험한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소득은 감소하였고,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약 2,950만원이었으며, 가처분소득은 약 2,670만원 수준이었다. 빈곤 무경험 가구의 소득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빈곤 1년 경험 가구의 경상소득은 약 58.0%, 2년 경험가구의 경상소득은 38.6%였으며 5년 빈곤경험가구의 평균소득은 19.5%였다.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경상소득에 비해 덜한 것을 알 수 있다. 1회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소득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60%였고 5년간 빈곤상태에 계속 머물렀던 가구의 소득은 빈곤 무경험 가구의 20.6% 수준이었다.

한편 기초보장 수급경험 회수별로 소득수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5년간 기초보장 수급 경험이 전혀 없는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연간 약 2,447만원이며 평균

표 4. 빈곤경험회수별 평균소득 비교(경상소득 상대빈곤을 기준)

(단위: 원, %)

빈곤경험회수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평균	상대소득비교	평균	상대소득비교
0	2,949	100.0	2,666	100.0
1	1,710	58.0	1,598	60.0
2	1,137	38.6	1,069	40.1
3	962	32.6	921	34.5
4	788	26.7	748	28.0
5	576	19.5	550	20.6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가처분소득은 2,223만원이었다. 수급 무경험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1년 경험가구의 경상소득은 약 44%, 2년 경험가구의 소득은 44.3%, 3년 경험가구의 소득은 41.1%였다. 수급을 경험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소득격차는 큰 반면, 1~3년간 수급을 경험한 가구들 사이에서 경험 회수에 따른 소득격차는 크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5. 가구 특성별 빈곤 경험 회수 분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빈곤경험 회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경상소득기준 상대빈곤의 평균 경험회수를 비교하였다(그림 1). 연령별로는 50대까지는 평균 1회 미만의 빈곤경험을 보여주는 반면, 60대는 1.22회, 70대 이상 가구는 2.9회의 빈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는 0.67회인 반면 여성의 경우 2.24회로 나타나, 여성가구가 빈곤의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저학력층이 빈곤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 중졸 이하 가구가 5년간 약 2회 빈곤을 경험한 반면 다른 학력층에서는 평균 빈곤 경험회수가 1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2]는 거주지역, 가구원수, 가구의 경제활동상태(종사상 지위)별로 빈곤 경험회수를 비교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나 광역시, 기타 도시지역의 빈곤경험 회수가 1회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군 지역은 가장 높은 1.87회의 빈곤 경험을 보인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의 빈곤 경험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2.45회), 다음이 2인 가구(1.3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부터는 평균 경험회수가 1회에 미치지 못한다.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 지위에 따라 빈곤경험회수를 비교한 결과, 가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빈곤 경험회수가 2.29회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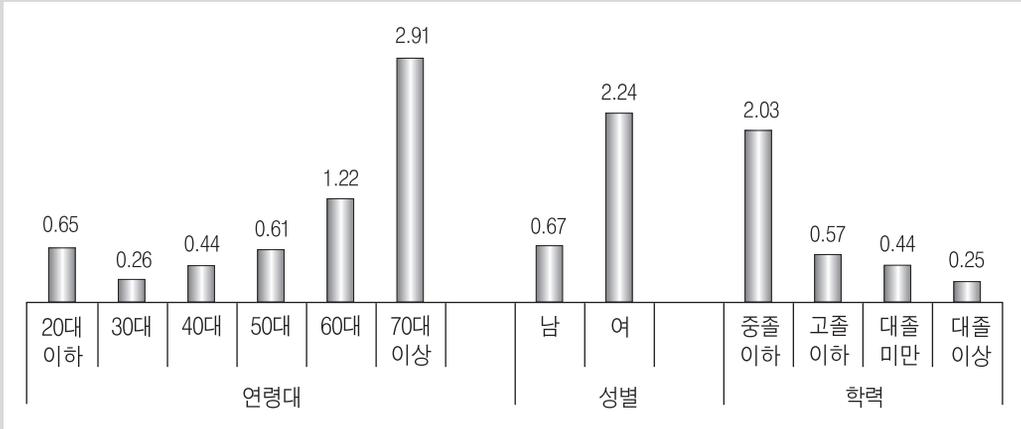
표 5. 기초보장수급 경험회수별 평균소득 비교

(단위: 원, %)

수급경험회수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평균	상대소득비교	평균	상대소득비교
0	2,447	100.0	2,223	100.0
1	1,077	44.0	1,009	45.4
2	1,084	44.3	1,052	47.3
3	1,006	41.1	979	44.0
4	907	37.1	801	36.0
5	834	34.1	828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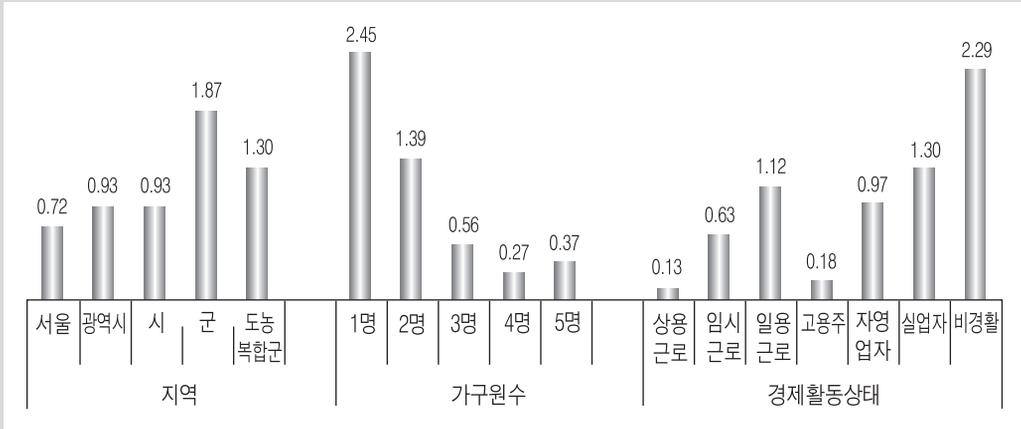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그림 1. 가구특성별 빈곤경험회수의 분포(연령, 성, 학력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그림 2. 가구특성별 빈곤경험회수의 분포(지역, 가구원수, 경제활동상태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결자료

(1.30회), 일용근로자(1.12회)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상용근로자나 고용주인 가구의 빈곤 경험회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6. 맺음말

지난 5년간 빈곤의 경험회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빈곤 경험가구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25%를

넘는다는 사실로부터 빈곤정책의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 빈곤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체 가구의 약 1/4이 빈곤정책의 대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는 전통적으로 빈곤에 대해 취약한 집단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집단은 정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빈곤 경험이라는 동태적 측면에서도 고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빈곤의 진입 뿐만 아니라 빈곤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장기수급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급자로의 진출입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리 말해 일시적 충격에 의해 빈곤을 경험하게 된 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층 변화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대응성을 높이거나 일시적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빈
곤
복
지